

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1 5, 사형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사형에 대한 세션 15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논의할 다음 이슈는 사형과 사형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사형의 역사에서 중요한 몇 가지 법적 사례를 살펴보고 도덕적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사형은 정당화될 수 있는 형벌의 한 형태일까요? 그래서 1972년 *Furman v. Georgia* 사건에서 당시 시행되던 사형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경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당시 사형의 방법은 전기의자, 가스실, 교수형, 사형대였습니다. 이는 치명적 주사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대법원에 대한 5대 4의 다수 의견이었지만, 이 5명의 판사 중 어느 누구도 사용하거나 확증한 주요 주장은 실제로 서로 겹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옹호하는 5개의 다른 다수 의견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사형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적용 방식 중 어느 것에서든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사형 금지는 불과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76년에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인 *Gregg v. Georgia*가 있었는데, 이 판결에서 법원은 사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드시 위헌적이지는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첫째, 품위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고,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형의 허용이나 허용과 관련하여 미국 법률의 역사에서 잠깐 중단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 주가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주에 맡겨져 있습니다. 1987년 *McCluskey v. Kemp* 사건에서 법원은 백인을 살해한 사람이 흑인을 살해한 사람보다 처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1976년부터 2019년까지 *Gregg v. Georgia* 이후 미국에서의 사형 집행에 대한 통계입니다. 사형 집행자 중 56%는 백인, 34%는 흑인, 9%는 히스패닉이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 중 76%는 백인, 15%는 흑인, 7%는 히스패닉이었습니다.

처형된 사람 중 여성은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사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처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속에서 이를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 올린과 베리는 제가 본 처벌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 일반적인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처벌을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정당한 권위자가 가하는 고통이나 해악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처벌에 대한 좋은 일반적인 정의라면, 어떤 종류의 중범죄나 경범죄에 대해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든 교통법 위반이나 기관 내 규칙 위반 또는 가족 내 처벌이든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맥락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러한 모든 다른 맥락과 사회의 모든 다른 계층에 처벌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처벌에 대한 이해가 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정당한 권위자가 가하는 고통이나 해악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목적 측면에서 가장 좋거나 적절한 일반적인 처벌 이론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모든 수준의 처벌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처벌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제론자는 처벌이 주어진 사건에서 특정 범죄자의 행동, 처벌을 받는 사람, 그리고 같은 종류의 범죄나 잘못된 행동을 저지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모두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억제론은 처벌이 나쁜 행동을 억제하거나 낙담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혁론자 또는 재활론자는 처벌이 범죄자를 사회의 생산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 재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복주의가 있는데, 이는 주로 가해자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처벌이 주어진다는 관점입니다. 가해자의 자율성과 피해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응입니다. 따라서 처벌에 대한 세 가지 일반적인 방향이 있으며, 다른 방향을 배제하고 하나만을 긍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상가들은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를 들어 보복주의자가 되어 형벌의 주된 목적은 형벌에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정의롭고 공평한 대응이며, 일종의 긍정적인 부작용 또는 보조적 기능으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범죄자를 개혁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전통, 도덕 이론 및 사형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그 중 일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사형제나 형벌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비난하거나, 일반적으로 이것이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이나 해악에 근거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들은 형벌과 관련하여 억제와 재활을 모두 고려할 것입니다. 사형제와 관련하여 재활은 확실히 불가능하지만, 만약 그들이 사형제를 지지한다면 억제는 공리주의자들의 사형제 지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칸트 윤리에서 사형은 개인의 자율성, 즉 사형이 실제로 가해자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칸트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이는 철학자 헤겔이 사형을 옹호한 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죽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법적 당국에 “내 생명을 빼앗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도 죽여주세요. 그게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형을 지지하는 칸트적 접근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자연법과 도덕 신학에 관해서, 이 전통에서, 특히 생명의 신성함을 고려한 사형제에 대한 정당화나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 유대-기독교 전통 내에서, 오늘날의 사형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사형제가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찬반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형제의 주요 지지자와 사형제의 주요 비판자가 본질적으로 그들의 주장에 대해 논쟁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설정했습니다. 비록 제가 그들의 주장을 인용한 기사들이 실제로 서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들이 모두 같은 주장을 다루기 때문에 대화처럼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사형제의 주요 비판자는 Hugo Badal로, 그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강조한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강조합니다. 백인을 살해한 사람이 소수자를 살해한 사람보다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의 불의.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이 너무 불평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형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사형을 적용할 때 적용 측면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사형을 전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형의 주요 지지자는 어니스트 반 담 하그입니다.

이 주장에 대한 그의 반응은 사형제의 불평등한 적용이 사형제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백인 살인자를 소수자 살인자와 달리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주의 깊게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바달이 일부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사법 오류라는 문제에 호소한다는 또 다른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형수였지만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항소가 없었다면, 그들의 최종 처형을 연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죄가 밝혀지기 전에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할 여지 없이, 무고했지만 잘못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경우든 피해야 할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사형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죄 및 잘못된 유죄 판결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가장 좋은 추정치는 1년에 약 4번 무고한 사람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많은 경우, 또는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사형수에 오르고 궁극적으로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 덴 하그의 답변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인간 활동이 많지만 ,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런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고속 교통의 불행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매년 수천, 수천 명이 사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거나, 심지어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을 상당히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요.

고층 건물에서 일하거나 건설과 관련된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년 수백, 수천 건의 중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년 이런 상황에서 사망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불법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높은 건물은 짓지 말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글썄요, 그건 그저 그 영역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제 말은, 무정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높은 빌딩을 원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공간을 극대화하고 싶고, 빠르게 운전할 수 있고, 그 외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네, 매년 3, 4, 5천 명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자유와 편의를 위해 한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좋아요, 몇몇 사람이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고한 사람들이 매년 잘못된 유죄 판결로 인해 죽습니다.

그러면 사형을 꼭 치르지는 않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옥에 있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중단할 것인가요? 형사 사법 제도를 종식시킬 것인가요? 당신은 건설과 운송과 같이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은 시민 사회의 모든 이 다양한 측면의 슬픈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비다우가 제기하는 또 다른 주장은 사형제, 즉 사형이 생각만큼 큰 억제력이 아니라는 생각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가 시행되면 사람들이 사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더 나은 억제력이라는 결정적인 통계적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형제와 사형제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는 것보다 더 나은 억제력입니다. 문제는 사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보다 더 나은 억제력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반 덴 하그의 답변은 인간 심리학에 대한 기본 사실에 호소합니다. 그는 경험상 위협과 처벌이 클수록 억제력이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억제력을 그들 만의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형이 종신형보다 더 큰 억제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형을 지지하는 주요 주장은 억제력이나 다른 좋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은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처벌은 범죄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 덴 하그가 그 주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다는 비용에 대한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심에 근거하여 주장을 합니다.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적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가 잇따르고, 이런 사건 중 다수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못하더라도 항소 절차는 각 항소가 처리되는 데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항소는 10년 이상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형수들이 처형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형사 사법 제도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정부, 그리고 많은 돈을 절약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최후의 처벌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걱정도 없앨 수 있습니다.

반 덴 하그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는 누군가를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서 그들에게 음식과 주거를 제공하는 대안과 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며 답합니다. 그것은 싸지 않은데, 적어도 사람이 처형될 때는 그 모든 비용이 절약됩니다. 그러니 누가 알겠나요, 종신형과 사형의 전체 비용 면에서 비슷하거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제에 대한 철학적 주장, 매우 일반적인 철학적 주장,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찬반에 대한 성경적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주장은 구약성경이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사람의 피를 사람으로 흘린 자는 그 피도 흘릴 것이요,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음이니라.”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형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그것은 구약성경의 법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는 강간, 납치, 근친상간과 같은 사형을 정당화하는 다른 범죄가 많이 있고 오늘날에는 사형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다른 모든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데 살인에만 선택적으로 사형을 적용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신권정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또 다른 주장은 중요한 신약성서 구절, 특히 로마서 13장에 호소하는데, 사도 바울이 죽음의 도구인 칼을 찬성하는 듯 인용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과 5절의 그 구절 중 일부가 있는데, 바울은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의 선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면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치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진노의 대리인으로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가능한 처벌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로서도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칼을 언급합니다. 칼이란 무엇입니까? 칼로 사람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손목을 때리지 마. 칼로 죽이지. 죽음의 도구야.

많은 사람들이 이 특정 구절을 암묵적으로 사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맥락이 사형 범죄가 아니라

세금과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것을 우리가 통치 당국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사형제에 대한 논쟁에 관심이 없거나,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표준적인 답변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사형제에 반대하는 주장의 관점에서, 한 가지 추론은 성경에서 자비에 대한 강조에 호소하는데, 이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통죄로 잡힌 예수와 이 여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에서 예수께서는 그녀의 사건에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기를 거부하시는 듯합니다. 간통죄로 잡힌 이 여자가 예수 앞에 끌려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선생님, 뭐라고 하실 건가요? 율법은 그녀를 죽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판단은 어때요? 그는 흠에 글을 쓰고 있어요. 그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들은 질문을 반복해요.

마침내 그는 일어나 그들에게 말을 건넨다. 결국 그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장 어린 사람까지 한 명 한 명 돌을 던지고 걸어갔다.

강력한 이야기이고, 분명히 자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죄의 삶을 떠나라. 그는 그녀를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는다.

회개하라는 꽤 강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회개하고 죄악의 삶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시하거나 승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그들이 원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그것이 사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사형에 반대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수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단지 실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경우에 구약의 율법을 적용한다면, 도덕적 범죄에 대한 그 여자의 파트너가 여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밥 딜런이 말했듯이, 혼자서 사랑을 할 수는 없어. 그녀는 이 도덕적 범죄에 파트너가 있어야 했어. 그가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 그녀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미 구약성서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그러니 그가 그녀를 놓아준 것은 단순히 구약 율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폐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토론이네요. 요한복음 8장의 그 구절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성경 사본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을 설교조차 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에 대해 아는 것과 복음 자료에서 얻은 그의 초상화와 확실히 맞아떨어집니다. 그것은 그가 할 법한 일의 종류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본에 그것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어떤 학자와 목사들에게 약간의 멈춤을 줍니다. 특히 이 문제에 적용될 때, 그것에 얼마나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멈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또 다른 사형 반대 주장은 모세의 기준이 적어도 많은 경우 오늘날의 사형 적용을 불법화할 것이라는 생각에 호소합니다.

구약성경의 법에 규정된 대로, 또는 사형제 문제를 다룬 대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고, 목격자는 처형을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돌을 던지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했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사형제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임스 홈즈의 경우처럼 어떤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그는 몇 년 전 극장에서 12명 정도를 살해한 배트맨 영화 살인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특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사형수들은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도 그들이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압도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격자가 레버를 당기거나 버튼을 눌러 치명적 주사를 시작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분명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처형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 것에 대한 이 구약성서 요구 사항의 천재성, 실제적 천재성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살인,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에 유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데 실제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짓 이야기를 고수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주장에 대한 응답으로, 이는 사형의 정의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절차적 문제라는 요점이 종종 제기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lex talionis*라는 원칙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과 범인을 죽이는 실제 과정에 기여한 증인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정한 절차적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절차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많은 경우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종종 지적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 수 있다는 인식론적 보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두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목격자만큼이나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격자들이 오도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가 더 확실하고 특정 개인의 죄책에 대한 확신을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격자 증언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사형제에 대한 찬반 양쪽의 주요 주장, 철학적, 신학적 주장에 대한 리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사형에 대한 세션 15입니다.